



보도 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6.17.(수) 15:00

국가AI전략위, 인문사회 기반 AI 융합인재양성 방향 논의

- 「인문사회 기반 AI 융합교육 정책포럼」 개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6월 17일(수) 14시 위원회 회의실에서 「인문사회 기반 AI 융합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위원회 교육·인재분과(분과위원장 이민석 국민대 교수)와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협의회(회장 정병호 고려대 교수)가 공동 주관했으며 위원회 교육·인재분과 위원, 국가교육위원회 인문사회특별위원회 위원, HUSS 주관·참여대학과 교육부·한국연구재단 관계자, 대학 AI 교육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Humanities Utmost Sharing System): 대학 간 공유·협력 체계 기반의 융합 교육과정을 통해, 미래 사회의 복합적 과제를 해결할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

‘인문사회 AX 교육은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인문사회적 통찰과 AI 활용 역량을 겸비한 융합인재 양성 방향을 다룬 기조강연, 주제발표, 종합토론으로 나누어 논의했다. 특히 ‘문제를 정의하는 인간’과 ‘문제를 해결하는 AI’의 관계를 바탕으로, 인문사회 기반 AI 융합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고 대학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교육 모델과 확산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기조강연에서는 인문사회 기반 AI 융합교육이 지향해야 할 정책 방향과 교육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민석 분과위원장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과 연계한 AI 교육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며, AI 시대 인문학·사회과학 분야가 마주한 교육 과제를 짚었다. 유인태 국가교육위원회 인문사회특별위원회 위원은 ‘인문사회XA교육이란 무엇인가: 문제해결에서 문제정의’를 주제로, 공학 중심 AI 교육과 차별화되는 인문사회 특화 융합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대학의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대학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AI 융합교육 모델과 이를 뒷받침할 기반을 논의했다. 이승은 고려대 교수는 '인문사회 기반 AI 융합교육 모델과 사례'를 발표하며, 인문사회적 사고로 문제를 발견하고 데이터로 구조화해 AI를 통해 현실에 적용하는 순환적 교육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문사회 분야가 AI 시스템 구축의 주변부가 아니라 인간 중심 AI 설계의 중심부에 놓여야 한다는 것이 이 모델의 핵심이다. 유한별 선문대 교수는 교육·인증·데이터를 하나로 묶은 국가 수준의 통합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며, 개별 대학 단위의 프로그램을 넘어 범국가적 인문사회 AI 융합교육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종합토론은 정유진 고려대 교수의 진행으로 위원회 교육·인재분과 위원, HUSS 참여대학 소속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인문사회 기반 AI 융합교육의 제도적 안착과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AI 시대 대학 교육이 단순한 기술 활용 교육을 넘어, 인문사회적 문제의식과 AI 활용 역량을 함께 기르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대학별 AI 융합교육 모델의 고도화, 우수 사례 공유·확산, 교육 데이터 인프라 구축, 교원 역량 강화 등 대학 교육 현장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나아가 HUSS 협의회가 자체 추진한 '인문사회 AI 교육 모델' 구축 경과와 성과를 공유했다.

송상훈 위원회 지원단장은 “대학은 인문사회적 통찰력과 AI 활용 역량을 함께 갖춘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핵심 기반”이라며, “위원회는 대학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AI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체계 전환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담당 부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인재양성지원팀	책임자	팀 장	김지연 (02-2224-4171)
		담당자	사무관	이인혜 (02-2224-4174)
			전문관	허영경 (02-2224-4177)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협의회 정책포럼

인문사회 AX 교육은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

융합인재 교육의 재설계 : '문제 해결'에서 '문제 정의'로

2026. 6. 17(수) 14:00~17:00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서울스퀘어 16층 회의실)



사회 : 이해영 (글로벌 공생 HUSS 주관대학 단장, 광운대)

개회식

14:00~14:20

- 개회사 : 정병호 (HUSS협의회 회장, 고려대)
- 환영사 : 송상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장)
- 축사 :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명환 (국가교육위원회 인문사회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제1부. 기초 강연

14:20~15:00

AI 시대의 인문학·사회과학 -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기

- 이민석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 교육 인재분과 위원장, 국민대 교수)

인문사회XA교육이란 무엇인가: '문제해결'에서 '문제정의'

- 유인태 (국가교육위원회 인문사회특별위원회 위원, 전남대 교수)

제2부. 주제 발표: 인문사회의 AI 융합 교육모델 사례와 실행 방안

15:00~15:30

인문사회 기반 AI 융합교육 모델과 사례

- 이승은 (Digital-HUSS, 고려대 교수)

인문사회 기반 AI 융합교육 실행 방안과 인프라

- 유한별 (위협사회 HUSS, 선문대 교수)

제3부 라운드테이블

15:40~17:00

대학의 인문사회 기반 AI+X 융합교육 모델

- 좌장 : 정유진 (인문사회의 AI 교육모델 정책과제 책임자, 고려대 교수)
- 토론 : 임완철 (국가AI전략위원회 교육 인재분과 위원, 경상국립대 교수)
김현철 (국가AI전략위원회 교육 인재분과 위원, 국가교육위원회 AI시대 교육 특별위원)
채홍준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 과장)
허정은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 본부장)
이용욱 (지역가치 HUSS 주관대학 단장, 전주대 교수)
정채연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HUSS 참여학생)

폐회

- 이민석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의 교육 인재분과 위원장)
- 정병호 (HUSS협의회 회장)